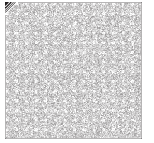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 기념 유리화 | 이남규 루카, 280x180cm, 레드케임 기법, 1989년, 혜화동성당

입당송 | 시편 119(118), 137, 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예제 33, 7-9

화답송 | 시편 95(94), 1-2, 6-7, 11, 12, 7-9(◎ 7과 8)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와 엮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 로마 13, 8-10

복음환호송 | 2코린 5, 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 마태 18, 15-20

영성체송 | 시편 42(41), 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방중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하느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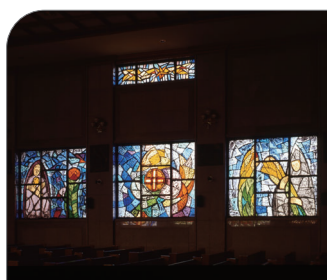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일들이 ‘갑자기’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어느 순간 다 써버린 치약, 남아있지 않은 휴지, 갑자기 기름이 부족하다는 자동차의 경고음, 필요한 순간 찾을 수 없는 식재료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닳아 없어진 것이지요.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느님을 향한 사랑도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장애에 이르게 됩니다. 이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듣고 볼 수 없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과 동시에 제대로 듣고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누구나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이나 질책보다 달콤한 위로와 인정의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충고라는 핑계로 이웃들에게는 악과 미움이 담겨있는 소리를 함부로 하곤 하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이에게 하는 행동이 이토록 다르니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일 듯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마태 18,15) 이 말씀을 들으면 나의 충고를 듣지 않는 타인이 생각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나는 다른 이의 충고를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발전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이지요. 한편, 다른 이에게 충고할 때는 반드시 미움과 분노가 아닌 애정과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형제를 “지적하고 꾸중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타일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애정 어린 충고에 앞서 미움과 분노를 먼저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묘한 뒷담화로 누군가를 해치려 하는 일에 너무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담고 있는지요. 다른 이의 충고를 수용하는 것, 악을 담지 않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타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오늘 독서와 복음을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오로는 오늘 독서에서 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나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스테인드글라스의 원색들은 생명의 내부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며 호흡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색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중심의 십자가를 향해 서로 어우러지며 하나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을 토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도 그런 모습이길 희망합니다. 서로 지지하고 돌보며 하느님과 관계를 통해 사랑과 화목을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저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제 경험을 공유하며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 가문비나무의 울림

바이올린 연주가의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는 지금껏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소울메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짝꿍,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나무를 깎아서 울림통을 만들고, 그 위에 현(string)을 묶어 활(bow)로 마찰을 일으켜 소리를 내는 현악기입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울림통에 사용되는 나무인데요, 바로 ‘가문비나무’입니다.

가문비나무는 아주 높은 고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무와 달리 위쪽 부분에만 가지가 자라는 조금은 신기하게 생긴 나무입니다. 고지대의 어둡고 컴컴한 산속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윗부분의 가지들만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아래쪽 가지들은 스스로 땅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햇빛을 보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가문비나무의 그 아래 부분이 신기하게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소재가 됩니다. 그 이유는 고지대의 척박한 환경에서 몇백 년이 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무가 자라는 동안 나이테가 매우 촘촘해지고, 세포벽도 단단해지면서 악기로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문비나무가 자라는 환경은 척박함 그 자체입니다. 나무 스스로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 버리며 생존해야 하는 처절한 몸부림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전혀 다른 축복으로 이어지고 새로움으로 탄생합니다. 고된 역경과 힘겨운 고난 속에서 자란 단단한 밀도를 가진 나무만이 반짝 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김수연 클라우디아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가문비나무의 이야기는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탄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제 마음은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굴곡과 아픔, 역경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 나뭇가지를 땅에 계속 떨어구지만 빛을 향하여 위로 뻗어나가는 가문비나무처럼 말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이처럼 컴컴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단단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빛에 오로지 의지하며 용기와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우리도 바이올린과 같은 천상의 아름다운 울림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창세 15,1)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거나 당장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마음속이 답답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오로지 주님 말씀의 빛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묵묵히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교회’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담으시나요?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교회’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성당 건물, 신부님, 수녀님 등등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인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좋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난 교회 때문에 힘들어.’ 등등을 말씀하신다면 그때 교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각자의 체험이 그 단어에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이분은 교회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걸까요?

성경에는 교회를 가리키는 이미지들이 많은데, 양 우리, 양 떼, 하느님의 밭,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거처,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 교회 역사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한 것은 아마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몸’일 것입니다.

한편 교회사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공식적 가르침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공의회는 <교회헌장>을 통해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누가 그 사명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를 장엄하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선언합니다. <교회헌장>은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들 외에, 교회를 묘사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하느님 백성’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는^(1베드 2,9 참조)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새

로운 백성을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걸어갔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향해 인간 역사 속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백성이란 단순히 평신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던 것처럼, 교황님도 주교님도 사제들도 하느님 백성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의회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표현을 빌려, 하느님의 백성이란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세례받은 사람들 전체’라고 선언합니다. 참고로 교황님은 ‘로마의 주교’이기도 하십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표현합니다. 저마다의 몫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품성사를 통해 직무 사제로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며, 이 양쪽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수도 생활이라는 양식에 따라 살기도 합니다. 저마다의 몫을 하면서 ‘하느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백성에 속하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단순히 어떤 제도만도 아니고, 어떤 특정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닌,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신앙과 과학은 조화될 수 있는가?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지난 연재까지 퍼즐 풀이 혹은 문제 풀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자연과학이 지닌 힘과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은 일종의 문제 풀이입니다. 특히 현대 자연과학은 자신의 문제 풀이의 영역을 좁히고 구체화하고 그 방법을 단순명쾌하게 가다듬었고, 덕분에 과학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성공은 아주 중요한 것을 희생함으로써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체성, 통합성, 가치성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는 당연합니다. 과학의 문제 풀이는 지극히 세부적인 전문분야 안에만 적용되고, 이를 무리하게 ‘전체’로 확장시키거나 서로 다른 문제 풀이의 방법과 결과들을 억지로 ‘통합’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 맙니다. 또한 ‘가치’는 처음부터 양(量)이나 수(數)로 표현·측정될 수 없는 것이기에 과학에서 다루기에는 지극히 애매모호한 대상입니다. 그러니 ‘가치’는 과학에서 다룰 수 없고, 다루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전체성, 통합성, 가치성은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과학이 아니라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이 주로 다루게 됩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의 눈부신 성공으로 말미암아 인문학이 힘을 잃고 주변으로 밀려난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인문학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문학은 자연과학이 일찌감치 내려놓고 간 것들, 곧 전체성, 통합성, 가치성에 대한 질문과 열망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도킨스와 같은 이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과학을 넘는 차원을 이야기할 때, 인문학 특히 철학은 그 오류를 간

파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다시 잡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 철학은 질문으로 시작하여 질문으로 끝나곤 합니다. 특히 인간과 세상의 궁극적 기원과 목적에 대한 질문 앞에서, 철학은 그 질문을 예리하게 가다듬기만 할 뿐, 확실한 답을 주지는 못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훌쩍 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이 철학의 품에서 태어날 당시부터 간직하고 있었으나 ‘문제 풀이’의 효율성을 위해 결국 놓아버린 질문, 철학이 언제나 붙잡고 고민하였으나 끝내 ‘답’을 주지 못한 그 질문, 바로 인간과 세상의 궁극적 기원과 목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우리에게, 나아가 인류 전체에 길을 알려주고 빛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가톨릭 성직자이기에 너무 쉽게 말한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을 일종의 주관적 신념으로만, 심지어는 삶의 부차적인 ‘액세서리’로 여기는 이 시대에 감히 과학과 철학을 넘어 우리에게 궁극적인 답을 주는 무엇으로 신앙을 내세우다니,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야말로 더욱더 ‘객관적 진리’로서의 신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리’로서의 신앙은 ‘사실들의 집합체’인 과학과 모순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상호 간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함께하는 변화



최윤정 베아트리스
구파발성당 하늘땅물벗 & 주일학교 교사

2020년 여름, 장마가 54일이나 길게 이어지자 그제야 우리가 짊어져야 할 기후 재난의 시대가 목도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담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심각한 위기의 시대가 온 것이죠. 하지만 《찬미 받으소서》에서도 지적하듯, 우리는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하게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기업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듯, 각 개인도 현재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하늘땅물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구파발성당은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가 있고, 엘이디(LED) 전등 교체, 쿨 루프 시공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녹색 성당입니다. 안 쓰는 전등은 끄고, 손 닦을 때는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고, 자판기에 스테인리스 컵을 놓는 등 에너지를 아끼는 습관이 신부님부터 교우들까지 전부 몸에 배어 있고요. 이런 저희 본당에도 ‘하늘땅물벗’이라는 생태 사도직 단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생태 문제를 접하니 그간 쌓여왔던 기후 우울감, 패배 의식, 분노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이웃과 연대하여 나누고 실천하니 외롭지 않고,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살아가는 자부심도 들었습니다. 위급한 소식을 알리는 파발 거점이었던 구파발, 이곳에서 저희가 생태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당 걸어가는 날



주일학교 환경 교리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성당 걸어가는 날’입니다. 이 날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개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함께 성당까지 걸어오는 시간을 보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기에 이날만큼은 모두 작은 불편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함께 수다 떨고, 놀이도 하고, 생태 친구들도 만나고, 간식을 먹으며 걸어오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장화 신은 플로깅

지구의 날에는 본당 교우들과 함께

성당 인근 실개천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동시에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눈에 많이 거슬렸던 개천 안의 쓰레기들을 장화를 신고 들어가 깔끔하게 치우고 나니, 개천가 동식물들이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순 시기 탄소 발자국 줄이기 어린이 실천 방안 10



사순 시기에
는 예수님의
수난을 생각

하며 어린이들과 탄소 발자국 줄이는 노력을 함께했습니다. 전기 끄기, 받은 음식 다 먹기, 금요일에는 고기 먹지 않기 등 10가지 중 실천한 항목에 매주 스티커를 붙였는데 종이 빼곡히 스티커가 가득 찼네요.

알쏭달쏭한 분리 배출 특강

양파망은 분리수거가 가능할까? 오렌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가? 일상적으로 궁금했던 알쏭달쏭한 분리수거 방식을 ‘하늘땅물벗’ 오경희 짬마 회원님이 교우들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알고 나니 분리수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역시 함께하면 힘들지 않아요.



2023년 감독_임태화

바로 6세 성인 교황의 전기 영화를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황이 마리아 몬티니라는 이름의 젊은 신부였던 때에 교황청 국무원에 들어가기 위한 면접을 보는 장면이 마음 깊이 남아있습니다. 면접을 담당한 공무처장 신부는 면접을 보러 온 신부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보니 교황청이 러시아 공산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통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마리아 몬티니 신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무일도를 바치고 아침 미사를 집전하겠다’는 답을 합니다. 영화 속 마리아 몬티니 신부의 저 대답은 여느 때의 우리 모습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내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더불어 여느 때의 우리 모습이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일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끄집어낸 여느 때와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이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 안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영화칼럼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황 속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아파트로 몰려온 생존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슬이슬하게 공존해 오던 생존자들을 아파트 밖으로 내쫓기로 결의하고, 이에 생존자들은 저항하지만 결국 아파트 밖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후 황궁아파트는 견고하게 세워진 바리케이드와 차등적이고 배타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주민 규칙을 바탕으로 황궁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하나의 성체로 거듭납니다.

영화는 황궁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여느 때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생존자들의 수용 여부를 두고 주민 투표를 벌일 때 주민 중 한 사람은 황궁아파트보다 집값이 더 높은 근처 타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자신들을 무시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며 생존자들을 쫓아내는 것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은 결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각자의 임무를 나눌 때 자(自)가(家)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서로를 구분 지으며 자(自)인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자 합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황궁아파트 주민들이 내리는 선택은 이처럼 평범한 상황 속에서 보였을 여느 때의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아파트 시세에 따라, 자신

의 집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로를 판단해 온 모습이 재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다수의 주민들과 다른 생각을 품은 이들의 모습도 비춥니다. 이들은 쫓겨난 생존자들을 남몰래 받아주거나 배급받은 생필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생존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 소수의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다수의 주민들에게 손가락질받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과는 다른 자신들의 여느 때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향한 물리적인 박해가 거의 사라진 시대에 순교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느 때의 모습과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을 때의 모습 사이의 괴리 없이 모두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 성월을 맞으며, 여느 때의 우리 모습이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살피고 이 같은 여느 때의 모습이 나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소식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들을 더욱 공경하고 기억하는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9월 17일(주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 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9월 17일 이재현 요셉 신부(41세)
- 1950년 9월 17일 정진구 마티아 신부(30세)
- 1950년 9월 17일 백남창 아가페도 신부(30세)
- 1978년 9월 12일 조인원 빈첸시오 신부(71세)
- 1991년 9월 14일 김덕계 치릴로 신부(64세)
- 2009년 9월 12일 남영희 이시도로 신부(74세)

*1950년 선종하신 신부님들은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로 한국 전쟁 중 순교한 분들입니다.

교구청 알림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명동대성당 상설고해소 휴무 안내

추석연휴로 상설고해소 휴무입니다
때: 9월28일(목)~10월1일(일) / 문의: 02)774-1784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갤러리1898 특별기획 이남규 30주기 기념전
<‘생명의 빛’ 위로와 환희>: 전관
전시일정: 9월6일(수)~21일(목)

서울대학교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신자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27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12월6일~14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김문희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데레사

문화홍보국 '2023 가을 문화학교'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1) (2023 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주님께 다가가는 글쓰기	9월14일~10월26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도심 속 반나절 피정	9월22일(금) 15시~18시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건축, 성경)	10월5일~11월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한글서예로 성경 말씀 쓰기	10월5일~26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에그리다 성가연주	10월5일~11월9일 매주(목) 19시~21시
수어로 드리는 기도	10월10일~10월31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청년' 향주삼덕	10월11일~11월8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10월17일~11월7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2)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때: 12월24일(일)~25일(월)
품목: 수공예 성물, 공예품, 성탄 관련 물품 등
9월17일까지 이메일(culture@seoul.catholic.kr) 접수
작품 이미지와 설명, 가격대, 작가 소개 포함
발표: 9월말 개별 통보 /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및 미사
때, 곳: 9월16일(토) 15시, 가톨릭회관 7층

'9월애 동행' 청소년·청년 순례길로

참여방법: ① '서울 순례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이벤트 참여, ② 신착순 완주자 200명에게 상품 제공 / 순례기간: 8월15일(화)~9월24일(일)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 문의: 02)2269-041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 념 분당 갖기' 미사 / 문의: 02)727-2420

때, 곳: 1384차 미사 9월1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서울대교구 안악 본당, 은울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복념분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제135차 사회교리학과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때: 9월18일~11월20일 매주(월) 19시~21시(8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회비: 8만원(우리 454-009601-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
신청: 9월15일까지 접수
문의: 02)727-2431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tholicip.or.kr) 참조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 안내

1) 2023년 살사프로젝트 4대 종단과 함께 하는 열린포럼
때, 곳: 8월17일(목),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전통문화공연장
주제: 유가족 돌봄을 위한 세미나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슬픔 속 희망찾기' 8월 유가족 미사
때, 곳: 8월19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1층 소성당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생명위원회

1)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9월12일 매월 두번째(화) 13시30분~16시30분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 '어른들을 위한 성, 생명, 사랑이야기'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 교육 13기

대상: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분들(부부, 개인), 자연주기법을 전하고 싶은 분들 / 모집마감: 10월5일(목)
때: 10월12일~12월14일 매주(목) 20시~21시30분(10주)
강의방식: Zoom을 통한 온라인 강의
회비: 부부 5만원, 개인 3만원(교재 포함)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동인회 3차 특강

주제: 윤형중 신부의 전교활동
강사: 배명부 선생 / 무료 특강
때: 8월30일(수) 19시30분~20시50분
곳: 명동 영성센터(구 계성여고) A104호
문의: 010-6764-7004 천 프란치스코

가톨릭학생회(KYCS-Cell) 회원 모집

가톨릭학생회는 로마교황청 산하 국제가톨릭학생회(IYCS-International Young Catholic Students)에 가입되어, 활동과 나눔을 통해 또래들과 체험을 공유하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어우러지며 건강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톨릭학생회로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대상: 가톨릭 신자 청소년(14세~18세)
곳: 가톨릭 청소년회관(해화동)
활동: 정기적인 학생모임 및 체험활동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yys.or.kr/cell) 참조

환경사목위원회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1) 제43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대상: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활동할 사람 / 주제: 「찬미받으소서」 기본 과정
강사: 이재돈 신부(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이다한 신부(몬테푸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회비: 1인당 3만원(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402-907778)
때: 9월19일~10월17일 매주(화) 14시~16시(총 4회)
곳: 명동 영성센터 B동 210호 / 마감: 9월15일(금)까지 접수
신청방법: 이메일(ecocatholic@hanmail.net) 및 전화 접수

2) 제47회 가톨릭 에코포럼

내용: 발제 1 "생명의 토대, 흙"(안철환 대표, 전통농업연구소) 발제 2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흙"(홍종렬 박사, 두물머리복음화연구소) / 주제: 생명의 토대 '흙'
대상: 관심 있는 일반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때, 곳: 9월20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02)727-2277 우리농

2023 하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내용: 변화된 양육 태도, 놀이 지원, 훈육 방법, 칭찬 방법, 말씀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신앙 전수법 등 /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70명(선착순 마감) / 문의: 02)727-2385, 2386
곳: 영성센터 B203호(구 계성여고)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140646(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
회비: 과목당 5만원(두 과목 모두 신청 시 10% 할인)
신청기간: 과목1 9월22일(금)까지, 과목2 10월31일(화)까지 /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과목 1. 유아발달이해	10월16일 · 10월23일 · 10월30일 · 11월6일(월)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4회)
과목 2. 신앙전수법	11월13일 · 11월20일 · 11월27일 · 12월4일(수)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4회)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성산동성당 일일대피정
강사: 윤민재 신부 / 문의: 010-6332-0007
때, 곳: 9월15일(금) 10시30분~16시30분, 성산동성당

4지구(종로·성북) 성령기도회
미사: 강익: 정성환 신부 / 문의: 010-3321-1863
때, 곳: 매일 셋째주(금) 9월15일 13시~16시, 길음동성당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회비: 115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김대건 신부님과 성모님 묵상 피정
강사: 박상희 신부 / 010-2724-4819 서울 마리아 학교
때, 곳: 9월18일(월) 9시30분~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회성)

성경 원독	10월13일(금)~21일(토), 11월10일(금)~18일(토), 12월8일(금)~16일(토) / 010-3340-0201
카타리나 피정의 집(개인·자체취사)	010-9715-1203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9월15일(금)~17일(일)	배영호 신부(수원교구)
10월20일(금)~22일(일)	전현호 신부(대구대교구)
11월17일(금)~19일(일)	김대우 신부(수원교구)
12월15일(금)~17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 순례	9월16일~18일, 10월2일~4일, 10월29일~31일, 11월16일~18일, 11월21일~23일, 11월26일~28일
성지순례 (추라도성지 포함)	10월7일~10일, 10월15일~18일, 2024년 3월21일~24일, 4월2일~5일
연말연시 특별 피정	12월29일~2024년 1월1일(눈꽃산행)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강사: 김완식 / 문의: 010-8898-6770
때: 9월16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담당: 김인성 신부

여성성지 월례 음악 피정
내용: 찬양미사, 강의 / 찬양, 폐제 기도
미사: 박상호 신부 / 문의(접수): 031)636-4061
때: 9월~11월 매월 네번째(토)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청년 성지순례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녀 / 문의: 010-6608-3217
때, 곳: 9월23일(토) 오전 8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순례지: 남양성모성지

삼성산 피정의 집 12주 작정 철야 기도회
때, 곳: 9월12일~11월28일 매주(화) 21시30분~다음날 4시(미사·안수 있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예수성심 위로의 전교회 모임 / 문의: 010-3275-8707
때, 곳: 매일 첫번째(금),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미사: 오전 10시30분·낮 12시 / 본회는 예수성심을 전파하고 가난한 성당과 공소 및 국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영적 물적 후원회입니다

춘천가톨릭회관 순교자 영성 피정
강사: 배광하 신부 / 문의: 033)245-7300
때, 곳: 9월22일(금) 14시~24일(일) 13시, 춘천가톨릭회관
회비: 17만원(교재 '너는 주를 놓고 나는 세우고' 포함) 9월12일(화)까지 접수(선착순 60명)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신청 참조(다음카페 춘천교구가톨릭회관)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에 초대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한국지부가 1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 하나 하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소박하고 겸손하게 내맡기며 본당에서 주1회 기도 모임을 함께하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문의: 010-7684-9663(Korea@mothersprayers.org)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9월23일~25일·10월1일~3일·10월7일~9일·10월12일~14일·10월17일~19일·10월20일~22일·10월24일~26일·10월29일~31일·11월3일~5일, 연말연시(해님·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월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이론강습-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기
곳: 텃밭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본원(주최)
문의: 010-6746-1997 (문자)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서울시교육청등록 대안교육기관 사비오 학교 / savio.kr
대상: 14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수업: 다큐멘터리, 연극, 바리스타, 요리, 미술, 기타 및 검정고시 학습지원 / 문의(상담): 02)833-0930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 참여자 모집
내용: 성인 몸살림운동·생활영어·피아노, 아동 피아노·미술 / 문의(회비·접수): 02)2231-1876~9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10주년 이벤트
연중 다양한 이벤트(홈페이지 참조)
회비: 일반·첫걸음 2만5천원, 단과 1만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자오나학교(기숙형 대안학교) 학생 모집
대상: 14세~24세의 청소년 미혼 양육모, 학교밖 청소년(여성) / 교육과정: 학습지원, 진로진학지도, 양육아 돌봄 및 양육자 교육 등
문의: 02)911-7580(www.zaona.net)

2024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수시모집 접수기간: 9월11일(월)~15일(금)
모집: 조형예술대학, 간호대학, 신학대학
전형방법: 학생부교과, 면접, 실기 반영
입학문의: 032)830-7022, 3 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

그리스도 레지오회 강좌·모집 / 문의: 02)2258-8983
1) English Bible Class-마태오 복음(온라인 수업)
레늄 크리스티 영성 프로그램
때: 9월13일부터 (수) 19시30분~21시(12회)
회비: 4만원 / www.legionariesofchrist.kr
2) 미국가톨릭사립학교 신입생 모집
대상: 초5~고1 / 수도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단기 1년, 장기 1년 이상 / www.oakinternational.co.kr

서울대교구 젊은이 성령세미나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 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에제 37,5) / 회비: 5만5천원
카카오플러스친구: 루하 / 인스타그램: @ruah.fiat
문의: 010-2672-9604 청년성령쇄신봉사회

무박 2일	9월23일(토) 10시30분~19시·9월24일(일) 10시30분~18시,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	---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 강좌
때: 10시~12시30분(미사 포함) / 매주 수업

예언서	매주(화), 성바오로 북카페 레벤(논현동, 전철 7호선 논현역 1번 출구 180미터) / 총 40주 문의: 010-9333-6260 양은철 신부
마르코(예수님 수의와 함께)	매주(목),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문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특별강좌
때, 곳: 14시, 예수회센터 103호 / 문의(접수): 02)3276-7794

9월14일(목)	신앙의 모범, 성모님에게서 배우는 영성생활	송봉모 신부
10월12일(목)	영신수련 '두 개의 것' 묵상 안에 열리는 삶의 의미	권효섭 신부
11월9일(목)	죄목상 공포증 너머 '정화'에 이르는 영신수련의 지혜	권오면 신부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0월11일~25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복음화학교 1단계 149기 개강

때: 9월18일(월) 19시·10월5일(목) 10시
곳: 가톨릭회관 5층 복음화학교 교실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모집

시스띠나 남성합창단원 모집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지휘
곳: 시스띠나 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제10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10월12일까지 접수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3733-6526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1964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심신이 건강한 남녀
봉사 분야: 병원 안내 / 모집: 9월22일(금)까지
문의(접수): 02)2258-5781, 2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44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10월21일(토) 13시30분, 자유곡 또는 가톨릭성가 / 문의: 010-3211-5195 (문자)
명동성당 홈페이지(PC버전) 단체 모집-이메일 접수

도봉산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때: (일) 9시 미사 / 문의: 02)3491-2326
대상: 성가대 반주 경험이 있는 분(파이프오르간 유경험자 환영) / 이메일: cjjavus@seoul.catholic.kr
성가 연습: 매주(목) 10시 미사 후·(일) 8시, 특별 연습은 부활 및 성탄·주요행사 준비(장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자 확인서
1차 서류 심사 후 2차 개별 면접(보수는 면접시 협의)

미사

역삼동성당 직장인 미사 / 문의: 02)553-0801

때, 곳: 매주(수) 낮 12시, B1 경향당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때: 9월11일(월) 10시30분 / 지도: 유명일 신부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문의: 02)828-3522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때, 곳: 매월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벤(논현) /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나눔: 지광규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
때, 곳: 9월23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문의: 02)953-0613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6주년 기념미사

내용: 강의,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곳: 9월13일(수)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1층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뽀자비의수녀회)

제23회 c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곳: 9월22일(금) 2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단장: 조승현 신부 / 문의: 0507-1473-2305
지휘: 이지영 / 티켓: 전석 2만원(인터파크 예매)
19시 저녁미사 후 전체 퇴장하고 입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도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일 기념행사

곳: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새남터 성지
10인 이상 단체는 꼭 사전 전화접수를 해주시시오
문의: 070-8672-0327 새남터성지 안내소
1) 영화 '탄생' 상영·영화 감독과의 토크쇼
때: 9월14일 12시30분~17시
2) 성곡 '성 김대건 신부님의 모친 고 우르술라 전'
9월16일(순교일) 미사와 행사(13시30분~17시)
미사: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와 사제단
순교자 현양 칸타타(Prima Ars 합창단)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교육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10월7일~11월11일 매주(토) 10시~15시(30시간)

직원모집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사회복지사, 간호사 / 인원: 분야별 각 1명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하여 지원서 접수 / 파트타임 지원도 가능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모집분야: 재무회계, 콘텐츠디자인, 인쇄국 재단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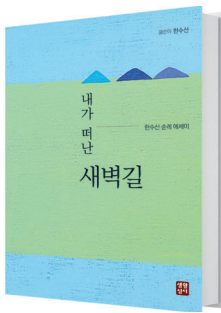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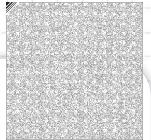
업무: 범죄 청소년 및 수용자, 출소예정자, 봉사자 전반적인 교육 담당 / 이메일: kyodo@catholic.or.kr
서류: 입사지원서(내부 양식), 본당 신자 확인서, 교적 사본 / 9월26일(화) 17시까지 접수
홈페이지(www.catholic-correction.co.kr) 모집 공고 참조

제가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921-0131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PC 가능한 분(경력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9월15일(금)까지 이메일(jegidongsd@catholic.or.kr) 및 방문·우편(우 02476,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31)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회 천주의 모친 봉쇄수도원	10월7일(토)~9일(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 5길 43	010-6561-2906(www.dominicocorea.com)
서울 가르멜 여자 수도원	수시	수도원(수유동)	02)902-1489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9월16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188-2793
천주교서울제천교구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9월16일(토) 14시	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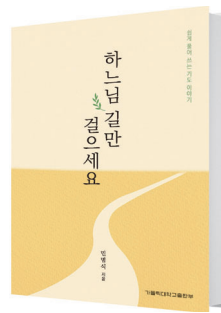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내가 떠난 새벽길

한수산 지음
생활성서사 | 240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초대 조선대목구장(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님과 최양업 신부님이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을 다룬 한수산 작가의 순례기이다. 이 책은 브뤼기에르 주교님과 최양업 신부님이 걸으셨던 길들, 작가가 직접 찾아간 시안쓰와 마찌아즈 교우촌, 롤롬보이의 오늘날, 신학생 최양업과 함께했던 김대건, 최방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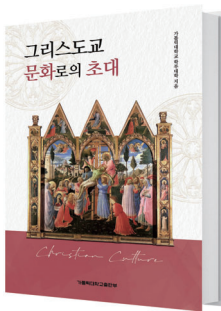


신간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

민범식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437쪽 | 1만5천원
문의: 02)740-9718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 생활이나 영성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자들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성신학과 심리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성생활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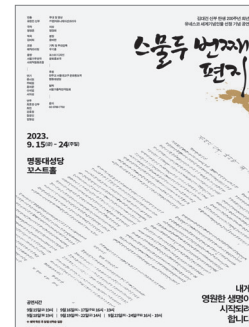


신간

그리스도교 문화로의 초대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44쪽 | 2만3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중세 철학으로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시각 예술, 그리고 근·현대의 문학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두루 소개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여러 작품에 담긴 아름다움과 함께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진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다.



연극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기념 공연 스물두 번째 편지

때, 곳: 9월 15일(금)-24일(주일), 명동대성당
포스트홀(9월 15일 19시 | 9월 16일-17일 16시·19시 | 9월 18일 19시 | 9월 19일-22일 14시 | 9월 23일-24일 16시·19시)
입장권: 전석 1만원 / 문의: 02)3789-7702

간절히 바라고 믿었던 하느님 나라를 위해 고난과 역경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신념과 용기의 인물, 김대건 신부님. 이번 공연에서 신부님의 편지를 따라 걸으며 굳건한 신앙과 뜨거운 사랑으로 펄펄 살아 뛰었던 스물 다섯의 청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명동대성당 가톨릭 미술 이야기

도슨트 프로그램

일정 안내: 9월 16일 ~ 11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토요일 오전 10시 40분

소요 시간: 약 1시간 | 문의: 02)751-4104 홍보위원회

신청 방법: 도슨트 홈페이지(cc.catholic.or.kr/docent 또는 상단 우측 쿼알코드 이용)에서 신청

명동대성당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본당으로 한국에 천주교 신앙이 전해진 이래로 그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며,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가톨릭 미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명동대성당의 역사와 건축, 전례, 성미술, 스테인드글라스에 담긴 복음적·예술적 메시지를 들으며 명동대성당을 새롭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사전 예약 쿼알(QR)
인터넷 사전 예약 필수



◎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III - 박수예 바이올린 리사이틀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 제3회차 두 번째 공연의 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는 16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파가니니 카프리스 전곡 음반 발매, 2022년 서울시향과의 협연음반 포함 BIS 레이블로 현재 5장의 인터내셔널 음반 발매를 비롯하여 그라모폰 '이달의 음반' 선정 및 '올해의 음반'에 노미네이트 되는 쾌거를 이룬 연주자입니다. 2022년 <포브스 코리아> '2023 파워리더'에 선정되기도 한 박수예는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회에서 울프 발린 사사 최고 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며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 베스테로스 심포니오케타, 남서독 필하모닉 콘스탄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2022 교향악축제 강남 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등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일시/장소 : 9월 18일(월) 오후 7시 30분 / 파밀리아 채플

·출연 :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 피아니스트 김홍기

·예매 : 전석 20,000원 (인터파크 티켓 판매 중)

☞ 비지정석, 휴식시간 없이 약 60분 공연

·문의 : 주관사 목프로덕션 ☎ 338-3816

※프로그램 및 연주자 약력은 예매사이트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명동대성당 소년복사단 모집

명동대성당 미사 때 신부님을 도와 성실하게 봉사할 남자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대 상 : 첫영성체를 받은 초등학교 3~6학년 남자

·구비서류 : 교적증명서, 지원서(성당 홈페이지→단체모집)

·모집기간 : 9월 10일(주일)까지

·문 의 : augustinus279@seoul.catholic.kr

◎ 새벽미사봉사단 신입단원 모집

·모집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55세 이하 교우로서 평일 오전 7시 미사 해설 및 독서 봉사 가능한 분

·모집기한 : 9월 17일(주일)까지

·문 의 : 단장 ☎ 010-3170-7878 (※반드시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선교부 신입부원 모집

예비신자들이 세례 받기 위한 6개월 교육기간 동안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지원해줄 수 있는, 하느님 사랑과 성실함을 갖춘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로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진 25~40세 교우

·활동 : 매월 시작되는 예비신자 교리반 담당 (예비신자 출결 및 교육과정 전반 관리) 및 환영식, 세례식 등

* 교리반 봉사 - 목/토/주일 중 1일 (6개월 고정)

☞ 목요일 오후 7시~9시

☞ 토요일 오후 3시~6시

☞ 주 일 오후 3시~6시

* 세례식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청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조

·기한 : 9월 30일(토)까지

·문의 : 예비신자 교리학교 ☎ 02)3407-3914

※신청서 접수 후 신부님·수녀님 면담이 있습니다. 면담 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되며, 면담 후에 봉사 여부 최종 결정됩니다.

◎ 2023년 하반기 견진성사 신청

·견진성사 : 10월 29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교리시간 : 9월 17일 ~ 10월 22일 (매 주일) 5주간
(☞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1일 휴강)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대면 수업

★★ 오후 1시 40분까지만 출석으로 인정,

5주 모두 참석 시 견진성사 가능 ★★

·신청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 교우 (단, 세례성사를 받고 3개월이 지난 교우부터 신청 가능)

·교리장소 : 교구청본관 401호

·교리교재 :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 가톨릭출판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저, 정가 6천원

※교재는 성물방이나 가톨릭출판사(www.catholicbook.kr)에서 각자 구입하여 지참

·신청방법 : 온라인·전화 신청 불가!

9월 10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 방문 접수

·구비서류 :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장소
명동성당 교적신자	① 증명(또는 반명함)사진 1장	-
	② 세례성사증명서	교적 본당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④ 견진 대부모님의 견진성사증명서	대부모님의 견진본당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타 본당 교적신자	상기 구비서류(①~⑤)	
	⑥ 신청자 본인 교적증명서	교적 본당
	⑦ 견진의뢰서	

※'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장애(=조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상세내역'으로 발급해 제출하십시오.

※'⑦ 견진의뢰서'는 견진신청서 본문 중앙에 명시되어 있으며, 교적 본당 사무실을 통해 반드시 주임 신부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0월 22일(주일)까지 '접수비(현금 10,000원)'와 '견진 성사 감사예물'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 상 : 성가 봉사를 희망하는 만 18~44세 남녀 가톨릭 신자

·연 습 : ☎ 15시~17시, ☎ 11시~12시

·활 동 : 주일 낮 12시 교중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 10월 21일(토) 13:30 / 명동성당 문화관 3층

·접 수 : 홈페이지(PC버전)→단체모집 게시판 공지 참조

·문 의 : ☎ 010-3211-5195 (※문자 요망)

◎ '봉사뱅크' 봉사자 모집

·대상 : 가톨릭 교우 (예비신자도 환영합니다!)

·활동 : 평일과 주일 상설 고해소 안내

·신청/문의 : 봉사뱅크 ☎ 010-3668-5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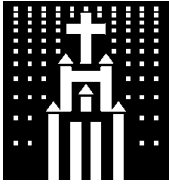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문자로 문의 요망!)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8세~12세 가톨릭신자 남아

·문의 : 자모회장 ☎ 010-8802-9003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평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전두병(요 아 김) 신부
부 주 임 진솔기(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 좌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 좌 리백진(파비아노)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21

봉헌 : 511, 211, 332

성체 : 188, 178, 157

파견 : 47

《 환영미사 및 약력 》

9월 10일(주일) 낮 12시 교중미사는 새로 부임하신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주임 신부**님의 환영미사로 봉헌됩니다. 따뜻한 환영과 함께 신부님의 영육 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약 력

1993. 7. 16. 사제 서품
1993. 12. 3. 잠실 성당 보좌
1995. 12. 1. 해외유학
2001. 1. 9.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2004. 12. 3. 국내수학
2007. 9. 18. 해방촌 성당 주임
2011. 8. 30. 사목국 일반교육부 차장
2015. 9. 1. 사목국 국장

《 세례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2023년 3월에 입교하신 예비신자분들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시는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 연례회 월례회의

·일시/장소 : 9월 10일(주일) 오전 11시 / 꼬스트 홀

◎ 명동대성당 가톨릭 영화 상영

·일시/장소 : 9월 10일(주일) 오후 2시 / 꼬스트 홀

·대 상 : 누구나 관람 가능 (무료 상영)

·상 영 작 : 보리울의 여름

◎ 첫 고 해

8월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그간 첫고해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한 고해성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일 고해성사 후 세례식 사진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 9월 12일(화)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9월 29일(금) 「추석」 당일 거행되는 모든 미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됩니다. 추석 합동 위령 미사에 미사 지향 접수하실 분들은 **9월 27일(수)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추석 당일 합동 위령 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7시

◎ 추석 연휴 기간 고해성사 및 본당 휴무

9월 28일(목)~10월 1일(주일)은 상설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본당 사무실은 9월 30일(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주일)은 정상 근무합니다.

※연휴 기간 미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봉헌됩니다.

◎ 2023년 하반기 견진성사 신청

·견진성사 : 10월 29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교리시간 : 9월 17일 ~ 10월 22일 (매 주일) 5주간
(☞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1일 휴강)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대면 수업

·신청방법 : 온라인 · 전화 신청 불가 !

9월 10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 방문 접수

※견진교리 신청대상과 구비서류, 기타 유의사항은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III - 박수예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장소 : 9월 18일(월) 오후 7시 30분 / 파밀리아 채플

※ 자세한 내용은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8/28-9/3).....25,339,000
· 연중 제 22 주일 헌금.....36,857,000
· 감사헌금 (8/28-9/3).....1,878,000
김 글라라 / 김 유스티나 / 박 레지나
박 율리안나 / 신 조슈아 / 심 알베르토
윤 요안나 / 이 대건안드레아 / 이 파비아노
임 사무엘 / 장 스텔라 / 차 실비아 / 최 로사
홍 마리아 / 홍 베로니카 / 황 안드레아

미 사 (M a s s)	주일미사 (일요일)	대성당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주일미사 (토요일)	대성당	고해성사 (Confession)			
			한국어	토-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화-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평일미사	대성당	월	오전 7시, 오후 6시		
			화-금	오전 7시, 오후 6시, 오후 7시		
			토	오전 7시		
	성지미사	대성당	월-토	오전 10시		
	영 어	주 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금	오 후 4시 - 6시	토	오 후 3시 - 5시		